인문연구 제94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4, No. 1, pp.39~72
http://dx.doi.org/10.21211/JHUM.94.2

줄리안 반즈의 『잉글랜드, 잉글랜드』

– "멋진 브리테니아"의 허상 –*

엄지은**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이 드러내는 영국성
3.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가 드러내는 영국성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영국성의 본질을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서 영국성의 해석 영역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영국 정부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국성의 강화를 정책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동시대의 영국 포스트모더니즘 소설가들은 해당 개념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간주하고,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 허구

* 이 논문은 2019년에 발표한 박사학위논문 『영국성의 신화와 해체: 줄리안 반즈의 『잉글랜드, 잉글랜드』와 그래험 스위프트의 『워터랜드』를 중심으로』 중 본론 2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강사

적 본질을 폭로했다. 본 논문은 줄리안 반즈가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내용뿐 아니라 형식을 통해 드러내는 역사와 역사에 기반을 둔 영국성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반즈가 포스트모더니즘 형식 중 하나인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을 사용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의 허구적 특성을 드러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반즈가 작품 전반에 걸쳐 독자들이 영국성의 본질을 직시하고, 단순히 영국성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절대 가치의 본질을 재평가하도록 이끌기 위해 사용한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가 드러내는 영국성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현대 영국성의 본질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와 연관지어 분석되던 영국성의 의미뿐 아니라, 해당 개념의 탐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인식 확장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줄리안 반즈, 『잉글랜드, 잉글랜드』, 영국성,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

1. 들어가는 말

영국성의 해석과 정의는 국가 정체성, 집단기억, 서사 등의 주요 구성 요소, 연구 방식, 연구자의 관점 등에 따라 끊임없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영국성이 영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정치, 문화, 문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 집단기억과 영국성의 관계를 연구한 앤더슨(Benedict Anderson)과 메르겐탈(Silvia Mergental)은 영국성과 같은 국가 정체성은 상상화된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가 정체성을 다룬 서사나 추상적 상징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국가 정체성은 개인 차원의 기억이 아닌 집단기억의 산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

영국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영국성을 의미하는 두 용어 "잉글리쉬니스"(Englishness)와 "브리티쉬니스(Britishness)의 의미도 논쟁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영국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영국의 지리·정치·사회·시기 등의 개별 요인과 이 요인들의 다양한 결합이 만들어낸 영국성이 영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뿐 아니라, 브리티쉬니스와 잉글리쉬니스의 정의와 그 차이를 주제로 삼은 관련 논문 및 저서들이 발표되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이 두 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이 중 한 명인 쿠마르도『영국성의 형성』(The Making of British Identity)에서 영국성을 나타내는 두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잉글리쉬니스와 브리티쉬니스의 차이점과 현대 영국성을 표현하기에 더 적합한 어휘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우선, 그는 "브리티쉬니스"를 식민지 확장을 통해 대영제국을 건설한 시기에 영국 본토인임을 식민지 지역의 대영제국 시민과 구별지어 규정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동시에, 쿠마르는 영국의 문화·종교·사회·경제 전반에서 걸쳐 사용된 이 어휘가 18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영국의 지배 계층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잉글리쉬"(English)를 "영국"(England)의 힘과 성공으로 채워진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담은 용어로 규정하고, 영국인들이 자신을 "잉글리쉬"로 인식하는 경향에 기반하여 "잉글리쉬니스"가 영국의 사회

1) 앤더슨은『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1983)에서 국가, 국가성, 국수주의를 집단기억을 기반삼아 문화적으로 발생한 구성물로 분석했으며, 메르겐탈은 영국성을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집단들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요인"((historically variable) attributions)에 기인하여 스스로를 영국인으로 규정짓는 담론의 영역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장한다.

적 통념과 국민 정서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어휘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오늘날 영국인의 자아 이해의 중심"(Kumar 220)을 "신자유주의"(Stapleton 257)로 보는 스태플턴(Julia Stapleton)의 관점과도 유사하다. 그리고 쿠마르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잉글리쉬니스가 다양한 양식의 영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오늘날에도 잉글리쉬니스와 영국인들이 지닌 자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잉글리쉬니스와 영국인의 밀접한 관계를 재차 강조한다. 실제로 현대 영국인들이 인식하는 영국성의 특징 중 상당수가 쿠마르가 인식한 잉글리쉬니스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본 논고에서는 쿠마르의 "잉글리쉬니스" 개념을 차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2)]

기존의 영국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 나타나는 영국성에 대한 연구는 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 이론에 비추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루쉬디(Salman Rushdie), 나이폴(V. S. Naipaul), 소잉카(Wole Soyinka), 고디머(Nadine Gordimer), 아체베(Chinua Achebe)처럼 식민 치하의 통제받는 삶과 영국에서의 유색인 또는 이민자로서 차별받는 삶을 둘 다 경험했거나 식민지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작가들의 작품 분석을 통해 그 논지를 정립하고 확장해 왔다. 일반적으로 평론가들은 해당 작가들이 고유한 경험과 필력을 바탕으로 영국성의 본질과 문제를 잘 드러낸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영국성을 해당 작가군의 개인 또는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과 직결된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는 영국성의 본질과 문제를 식민지 출신의 이민자나 유색인종의 전유물로 축소 및 곡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3)] 그리고,

---

2) 현대 영국인이 생각하는 영국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이 가능. https://www.bbc.com/news/uk-england-441428.

3) 루쉬디의 경우, 1947년 당시 아직 식민지였던 봄베이의 카슈미르 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봄베이 내에서의 중등과정을 마치고 캠브릿지의 킹

식민지를 경험한 사회 구성원들의 수는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영국성에 대한 이들의 관점과 경고는 자칫 현재가 아닌 과거에 존재했던 영국성을 향한 비판적 시각으로 그 의미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 이를 지양하고자, 여전히 현대 영국사회의 구심점 기능을 수행하는 영국성에 주목한 전후 영국 소설을 분석하고 오늘날 영국성의 의미와 본질을 재정립함으로써, 영국성과 국가 정체성 뿐 아니라 여타 절대적 가치와 개념들이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당 사회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위협을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한다.

효과적인 현대 영국성 분석을 위해, 작가와 작품 내 주요 등장인물들이 영국 출신이며, 이들 모두 영국성의 특징과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며, 해당 영국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을 통해 구현된 작품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영국 태생으로 영국에서 영국인의 일반 상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유년기를 지내고 마찬가지로 영국 공립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전통적인 영국성의 개념과 그 기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작가들을 탐색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영국의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작가 중 한 명인 줄리안 반즈(Julian Banres)가 영국성의 본질을 주된 주제로 다루며 완성한『잉글랜드, 잉글랜드』(England, England)(1998)를 본 논문에서 분석할 텍스트로 선정했다.[4)]

스 칼리지(King's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소잉카의 경우, 나이지리아의 남서부에 위치한 아베오쿠타에서 태어났으며, 이바단 소재의 정부대학교(Government College), 이바단 대학교(University College Ibadan)와 영국의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에서 수학했다. 고디머의 경우, 요하네스버그 인근 출신이며,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위트워터스랜드대학교(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에서 수학했다. 아체베도,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으며, 나이지리아 내에서 초중고등 교육을 모두 수료했다.

4) 반즈의 *England, England*는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국내 논문 및 출판물에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잉글랜드, 잉글랜드』의 내용 뿐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형식과 양식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작가가 이중으로 제시하는 영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영국성을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대의 영국사회와 유사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1장「잉글랜드」와 2장「잉글랜드, 잉글랜드」를 주요 분석 텍스트로 삼고,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형식 중 하나인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Historiographic meta-fiction)형식을 틀로 삼아 작가가 드러내고자하는 역사의 특성을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postmodernism parody)를 통해 나타나는 영국성의 양상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반즈가 내용 뿐 아니라 포스토모더니즘 형식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전통적인 영국성, 특히 영국인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역사와 결합한 영국성의 본질과 그 위협을 분석함으로써 제국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영국성의 해석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2.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이 드러내는 영국성

본문 분석에 앞서, 어떻게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이 본 논고에서 영국성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 분석의 핵심 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워(Patricia Waugh)는『메타픽션』(Metafic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에서 "메타픽션"(metafiction)을 "소설과 리얼리

서『영국, 영국』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영국 본섬의 중심 지역 중 하나인 '잉글랜드'가 주는 상징성과 놀이공원의 이름, 3장의 소제목이자 지명인 '앵글리어'와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작품 제목을『잉글랜드, 잉글랜드』로, 1장 소제목을「잉글랜드」, 2장 소제목의 경우「잉글랜드, 잉글랜드」로,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잉글랜드, 잉글랜드"로 표기하고자 한다.

티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설의 근본적인 구조를 점검할 뿐 아니라 문학의 허구적인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의 있을법한 허구성도 탐구하는 글"(Waugh 2)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메타픽션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서 가상 세계 창조 과정을 통해 기존 리얼리티의 개념을 강화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사실주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완성된 텍스트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리얼리티의 허구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메타픽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해당 리얼리티의 절대성에 의문을 가지고 작품 내의 서사와 리얼리티의 인위성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독자들은 일견 친숙한 방식으로 서술된 메타픽션 작품을 읽는 동안 예전처럼 작품의 세계에 빠져들고 몰입하는 대신, 자신이 지금 읽는 서사가 한 개인에 의한 구성물이자 허구적 산물이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 새로운 시각을 자신의 일상과 사회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리얼리티에 적용하고, 지금까지 당연히 받아들이던 해당 개념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메타픽션 양식의 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 다양한 층위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개념의 허구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자신의 일상에도 적용한다면 그동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회 체제와 그 속에 만연한 리얼리티의 인위적 구조와 의미 역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픽션은 독자들이 작품 내의 세계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 현실의 인위적 구성과 자신에게 미치는 그 구성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허구적 본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서사 형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헛천(Linda Hutcheon)은 이러한 메타픽션 중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의 정의와 특성을 자신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설명한다. 헛천에 따르면,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 사이를 구분짓는 상식적이거나 자연스러운 방식을 반박"하고

"역사와 허구는 둘 다 담론의 산물,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의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며, 역사와 허구는 둘 다 진실에 대한 그들의 주요 주장을 그 정체성에서 끌어낸다고 주장하며 오로지 역사만이 진실을 주장한다는 관점을 거부"(Hutcheon, "Poetics" 93)하기 때문에 역사의 허구성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형식이다. 또한, 헛천은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이 "텍스트의 자의식/자기 반영성"(self-consciousness/self-reflexivity of the text, 183)과 화이트(Hayden White)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가들이 지적하는 기록된 역사의 객관성과 완전성에 대한 의문을 동시에 드러내는 서사 양식이라고 설명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학자들은 사람들이 "역사"로 분류되거나 공인된 특정 개념이나 상황을 비판없이 "진실"로 인식하는 과정과 결과에 의구심을 가지고 맞선다. 이들은 절대적 개념으로 인식되던 기존 역사를 보편적인 진실이 아닌, 지엽적이고 고정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화이트나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학 비평가들은 역사서가 포함하는 사건 서술이 불가피하게 역사가 개인이나 특정 역사가 집단이 선별한 사건 배열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역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개인・집단・정부의 이해관계가 해당 사건이나 서사가 공인(公認)된 역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절대로 해당 국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역사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생각에 동조하는 역사학자들은 사관이 아무리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특정 사건을 기술하더라도,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동과 결정을 기술하거나 그 정황을 완전히 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역사 서술은 결국 개인의 상상력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역사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문학평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벳굿(Daniel Bedggood)은 새로운 역사관과 유사한 맥락으로 역사는 "그저 '글쓰기를 통해 사건에 질서를 부여하는 또 다른 서사나 담론이며, 과거를 밝히는 "사실들"을 생산한다는 역사의 주장은 의심스럽다"(Bedggood 85)라고 말한다. 헛천 역시 역사의 의미와 형태가 사건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유지하려는 체제에 기인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역사와 문학이 둘 다 인위적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5] 그리고 그녀는 역사를 작품의 소재로 선택한 포스트모더니즘 소설가들이 기존과 다른 서사 양식을 활용하여 역사의 본질에 의문을 던지고, 현대인에게 역사를 포함한 그 어떤 절대적 가치라도 비판 없는 수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실주의 작가들과 달리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 작가들은 독자들이 과거에는 절대적 진실로 인식하던 상황이나 개념뿐 아니라 주인공을 포함한 등장인물의 인지 능력도 함께 의심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는 독자가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 체제, 인물 등의 모든 대상을 의심과 비판의 시각을 통해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 작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자들이 독서 과정 중 역사의 허상을 깨닫는 순간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도 해당 순간을 이어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런 작가들의 의도가 성공할 경우, 독자들은 실제 세상에서도 객관성과 주체성을 갖춘 사관, 그 사관에 의해 공인된 역사, 더 나아가, 여타 절대적 개념과 그 개념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체제를 예전처럼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들은 독자들이 공인된 역사 기록을 접할 때, 그 기록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 파

5) 해당 내용은 Hutcheon. *A Poetics of Postmodernism* 88-90 참고.

편적 또는 선별적인 진실만을 담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 사회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당연하게 진실로 인정하는 여러 개념이나 가치에도 적용하도록 의도한다. 요약하자면,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은 메타픽션의 요소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사관, 역사, 영국성과 같은 역사에 기반을 둔 개념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 변화를 기대하는 서사 양식이다.

반즈 자신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전통의 창조라고 부를 법한 것"(Denning, "Inventing England" *The Irish Time*)과 영국의 문화적·역사적 기억과 산물을 기반삼은 영국성의 본질을 보여준다.[6] 그리고 반즈의 역사관은 기존의 절대적 개념 중 하나로서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던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포스트모더니즘 비평가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2000년도에 귀너리(Vanessa Guignery)가 반즈에게 "기존 작품에서 논한 과거에 대한 지식과 역사"(Guignery 52)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해당 인터뷰에서 반즈는 역사 서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당신이 증거가 있는 역사만 기술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술하려고 시도한다면, 당신이 보다 완전한 역사를 기술하려고 시도한다면, 당신은 허구화를 하거나,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역사가 문서의 묘사 이상이 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역사는 일종의 문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최상급 역사가들도 가장 위대한 소설가들처럼 서사를 쓰게 됩니다.
>
> Either you only write the history for which there is evidence, or, if you try to write more than that, if you try to write a more complete

6) 상세는 다음 인터뷰 참고. Denning. "Inventing England"

> history, then you have to fictionalise or imagine. And so, to that extent, history, if it attempts to be more than a description of documents a description of artifact has to be a sort of literary genre. But often the greatest historians write narrative as well as the best novelists.
> (Guignery 53)

따라서 이후로는 반즈가『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서사 양식 중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을 사용하여 역사와 역사를 기반으로 삼은 영국성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의 특징과 역사의 본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첫 번째 예는 "잉글랜드, 잉글랜드"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인 핏트만(Jack Pitman)이 직접 참여한 "조정 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56)의 회의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잉글랜드)의 축소판인 "잉글랜드, 잉글랜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핏트만은 직접 직함에 적합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다양한 인물을 선별하여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맡겨진 임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결정하고 진행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이들은 영국 역사상의 사건과 인물들을 완벽한 재현하고 모든 측면에서 영국의 정통성을 온전히 반영한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아닌,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의 극대화라는 핏트만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잉글랜드, 잉글랜드" 프로젝트를 준비할수록, 핏트만과 조정 위원회의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방문객들이 기대하는 제대로 검증된 역사를 온전히 재현한 정통 영국이 아니라 영국 역사를 소재로 삼아 한 개인의 경제적 야망을 충족시키는 사업장에 가까워 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핏트만이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전원에게 프로젝트의 본질을 친숙한 듯하지만 묘하게 낯설다는 의미를 지닌 "언캐니"(Uncanny 41)로 표현하는 장면에서부터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이어 그는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구닥다리"(Olde 58)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프로젝트는 정말 신기할거고, 그것은 정말 현대적일테니까요"(58)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독자들은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영국의 예전 방식과 모습을 그대로 옮긴 결과물임을 강조하기 위해 핏트만이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그가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가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그가 "구닥다리"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격려하는 이유 역시 영국의 정통성에 대한 존중이 아닌,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이윤 극대화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이는 그가 위원회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물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소련 정부의 음악 정책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 소련 정부는 "당신네들이 만든 음악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소. 우리는 민중을 위한 민중이 부르던 노래가 필요하오."라고 말했습니다.
>
> "그래서 가장 실력 있는 작곡가들은 모두 다양한 지역으로 보내졌고, 민속음악의 흥겨운 모음곡들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그가 무엇을 알게 하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나요? 진정한 민중 음악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탈린이 그 마을들을 다 쓸어버렸고, 그 모든 농민들이 그 마을을 떠나 뿔뿔 흩어지게 했죠.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그 음악도 쓸어버린 겁니다."…
>
> "그래서 그는 대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민중 음악을 새로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을 바탕으로 삼아 모음곡을 썼고, 그 곡들을 가지고 모스코 바로 돌아왔습니다. 임무는 완수된 셈이죠."
>
> None of your music, says the Kremlin, we need music for the people which comes from the people.

> So the top composers were all packed off to various regions and told to come back with cheerful suites of folk music.… And guess what he discovered? There wasn't any authentic folk music left! You see, Stalin had wiped out the villages, and scattered all the peasants, so he'd wiped out the music in the process.' …
>
> 'So this is what he did instead. He invented some new folk songs. Then He wrote a suite based on them and took it back to Moscow. Mission completed.' (68-69)

이처럼 조정 위원회와 핏트만이 준비 중인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지향점은 영국의 정통성 구현도, 과거와 단절된 현대 영국이나 미래 영국상의 구현도 아니다. 그의 이상적인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친숙한 장소이자, 그들이 정통 영국 체험 시설에 기대하는 정도의 정통성만을 지닌 영국이어서 결과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와 핏트만의 최대 수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모두의 눈에 진짜로 보이는 가짜 영국이다. 즉, 관광객과 핏트만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물일수록 그 장소는 영국의 정통성 재현과 동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핏트만이 이 예시를 마무리하며 내린 결론 중에 나오는 "역사는 관련이 없습니다."(70)라는 언급은 자신의 사업적 비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결국 핏트만과 그의 위원회의 회의 장면은 독자들이 "잉글랜드, 잉글랜드"를 진짜 영국(잉글랜드)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인위적 산물로 이해하고, 동시에 인간이 완성한 역사에 기반한 개념 역시 객관적이거나 완전할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로 분석될 수 있다.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 형식과 역사와 영국성의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두 번째 예는 위원회가 "잉글랜드, 잉글랜드" 건립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 조사와 그 결과를 추리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핏트만과 위원회는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성공적 건립

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영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개념이나 이미지들을 취합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고급 레져 활동의 잠재적 고객들"(86)을 대상으로 삼아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반즈는 "50가지 영국의 정수"를 포함한 이 설문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7]

> 영국하면 그들(설문응답자)에게 떠오르는 영국에 대한 여섯 가지 특징, 덕목, 정수를 나열하도록 … 그들(설문응답자들)은 자유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응답을 할 때 시간 제한, 미리 정해진 보기도 없다. … 따라서 전세계인들은 잭경에게 편견없이 그들이 생각하는 "영국의 50가지 정수"를 알렸다. (본문 강조)

> … to list six characteristics, virtues or quintessences which the word England suggested to them. They were not being asked to free-associate; there was no pressure of time on the respondents, no preselected multiple choice. … Citizen of the world therefore told Sir Jack in an unprejudiced way what in their view the the Fifty Quintessences of Englishness were. (86)

이 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현대 사회에서 여론의 단면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과 이와 관련된 객관식 보기가 제시된 일반적인 설문지법과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독자들은 설문 조사에 대한 설명과 그 취지를 읽은 후 "25개국의 잠재적 고객"으로 좁혀진 특정 설문 대상이 응답한 "50가지 영국의 정

---

7) 반즈가 제시한 25개국 응답자들이 선택한 영국을 대표하는 50가지는 86-88까지 나열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장에서 다루는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은 "왕가"(Royal Family), "빅벤/극회의사당"(Big Ben/Houses of Parliament), "계급제"(Class System), "제국주의"(Imperialism), "셰익스피어"(Shakespeare), "스톤헨지"(Stonehenge), "윈스턴처칠"(Winston Churcill), "브리튼 전투"(Battle of Britain), "프란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대헌장"(Magna Carta)으로 총 11개 항목이다.

수" 결과를 접할 때, 이는 비영국인의 눈에 비친 영국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설문 조사결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독자들은 이 설문지에 대한 설명 중 몇몇 표현을 주의하며 보아야 한다. 우선 살펴볼 표현은 "자유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다. 이는 "영국"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이나 이미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즉, 응답하는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영국"이라는 단어와 결합하고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결과를 요구하는 설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들이 선택한 영국과 관련된 여섯 가지 항목들을 외국인들이 영국에 대해 가진 보편적 단상이라기보다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성향을 반영하는 답변들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설문지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응답 조건은 "시간제한이 없다."이다. 독자들은 이 조건 때문에 응답자들이 결론적으로 제출한 답안과 그 답안을 근거로 삼은 위원회의 결정을 이중으로 심사숙고한 결과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문 조사가 시행될 때 응답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설문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나, 완료된 자신의 설문 답안을 즉시 수거하려는 대상이 앞에 있는 상황일 때, 해당 설문에 집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핏트만의 조정 위원회가 주관한 설문 결과는 응답자들이 단시간 동안 집중한 결과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설문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 완료된 결과일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응답자들은 주의가 흐트러진 채 설문을 완성하거나 응답자들의 일상이나 감정에 영향 받은 결과물로 완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응답자가 답안을 작성하는 동안에 영국과 관련된 특정 사건이나 문화와 관련된 언론 매체의 보도를 접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평소에 영국에 대해 가진 생각과 달라지거나 극단적으로 당시 상황을 반영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결국,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개개인의 주관

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일 수 없는 결과이며, 그 결과는 핏트만과 위원회와 같은 해석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차 변형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문 조사 과정과 그 후 진행된 논의 과정에 대한 작가의 상세한 기술을 읽는 독자들은 해당 과정과 공인된 역사를 결정하는 과정 사이의 유사성을 떠올릴 수 있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설문 조사결과를 근거로 "정통 영국"을 완성하는 핏트만과 위원회의 모습은 역사 전문가인 개인 또는 집단이 불가피하게 여러 개인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된 다양한 사료를 읽고 그 일부를 선별하여 특정 사건·정황·인물에 대한 역사로 공인하는 역사 기록 과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일련의 과정과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소설 형식을 결합한 반즈의 의도는 위원회의 결과물인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내세우는 전통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 기록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비판의식의 고취로 분석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마사(Martha Cochrane)와 핏트만이 "잉글랜드, 잉글랜드"에 영국의 전통적인 농촌 분위기를 더하려는 이유와 그 도입 과정이다. 마사는 정통 영국의 체험장인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농부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영국 역시 산업 혁명이 발생하기 전의 주된 국가 산업은 농업이었다. 따라서, 독자들은 마사가 주장한 과거 영국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정통 영국 체험"이라는 이 섬의 표면상의 목적과 결부하여 관광객들이 정통 영국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준비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마사의 의도는 이와 거리가 멀다.

> "전 농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제품의 배치에 대해 논하면서 시간을 씁니다. … 하

지만 우리는 이 업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식지 않은 매력 중 하나가 사람들을 내세운 홍보라는 점을 잊은 듯 합니다. 따뜻한, 다정한, 가식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미소가 감도는 아일랜드인 특유의 눈매로 우리는 산비탈에서 여러분을 언제든지 환영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느낌을 주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I'm not talking about agriculture. I'm talking about people. We spend our time discussing product placement, … but we seem to be forgetting that one of the oldest lures in this business is to advertise the people. The warm, friendly, natural people. Irish eyes are smiling, we'll keep a welcome in the hillsides and all that stuff.' (110)

그러나 마사는 이 안건을 발언할 때부터, 오늘날의 산물인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해당 제안의 핵심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고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비록 그 제안의 유용성과 섬에는 "원초적 제재"(110)와 "예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환대"(110)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점을 함께 언급한다. 이런 마사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독자들은 그녀의 최초 의도가 정통 영국의 재현이 아니며, 관광객들이 영국 농촌에서 만나리라고 기대하는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그 풍경을 재현함으로써 "잉글랜드, 잉글랜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농촌" 체험 정도로 그녀의 안건을 이해했던 핏트만은 그녀의 추가설명을 들은 후에 그 안건을 "이 쟁쟁한 미국의 달러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국 위안화(貨) 모두 우리의 저비용 노동자들과 단짝이 될"(110)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실행을 지시한다. 즉, 그는 영국의 전통적 요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광객의 기분을 맞추기에 적절한 마사의 "영국 농촌 재현 및 체험" 제안을 고민과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 그리고 마사의 우려에 대해 "그것 역시 가르칠 수 있어요. … 그리고 학습되

면서, 그건 점점 진짜가 될 겁니다."(110)라고 말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판매 소재로 삼은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핏트만의 해결책은 결국 경제적 투자(배우를 고용하여 적절한 "환대"를 학습시킨 후 적재적소에 배치)를 통한 새로운 전통의 생산이다. 다시 말해, 핏트만은 잠재적 고객들을 위해 "잉글랜드, 잉글랜드"에 있을법한 농부의 역할을 익히고, 그 연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배우를 고용함으로써 거짓 전통을 완성하는 방법을 통해 진정한 영국을 접하기를 원하는 관광객들의 기대와 그들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원하는 자신의 기대 모두 충족되기를 원한다. 이처럼 반즈는 허구적 세상의 창조 과정과 전통성의 인위성을 또다시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핏트만의 발언과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그들의 인식 형성과 제한에 영향을 미치고, 영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역사와 전통은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인 절대 진리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의해 쉽게 생성, 왜곡, 재창조 및 재현될 수 있는 허구적 개념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3.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가 드러내는 영국성

앞서 살펴본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을 포함한 메타픽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양식 중 하나는 "패러디"(parody)이다. 패러디의 기능에 주목한 설명을 살펴보자면, 워는 메타픽션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패러디를 리얼리티와 허구 세상의 경계를 허물면서, "틀을 파괴"(frame-breaks Waugh 31)하고 결과적으로 소설의 허구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헛천은 패러디의 특징을 그리스어 para

가 지닌 "~에 반(反)하여"(Hutcheon, "Parody" 32), "~의 옆에"(beside 32)라는 두 의미에서 찾는다. 이를 근거로 헛천은 패러디가 사용된 글에서는 "다른 텍스트를 조롱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옆에) 배치된"(32) 양상이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로즈(Margaret A. Rose)는 이들의 의견을 좀 더 확장하여 패러디를 기존 작품을 재편집이나 재구성하거나, 해당 맥락을 초월하는 통합과 전도 등을 시도하여 새로운 작품의 의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한다.[8)]

따라서, 많은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 작가들 역시 패러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헛천은 이들이 작품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를 활용하여 기존의 규범이나 가정을 전복시키기 위해 친숙한 소재와 구조적 특징들이 역설적이고 비판적인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고, 그 관계에 기반한 전개를 읽는 독자들이 재현의 인위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한다. 헛천이 주목한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는 기존 패러디보다 전복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이 믿었던 기록 역사의 본질을 비연속성과 불완전성으로 인지하고, 역사 기록 과정, 공인된 기록 역사, 그 역사를 근거로 삼은 여타 개념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서사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는 독자들이 당연하게 존재한다고 믿었던 경계, 즉 실제 세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역사와 허구 세계를 상상력에 기반하여 서술한 소설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 이 경계의 붕괴는 상징적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현실에서 역사와 관련된 교육, 사회 이념, 국민성 등의 다양한 절대 가치의 본질을 의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가치와 이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사회 체제와 정책들이 가진 허구성을 인식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반

8) 해당 내용 상세는 Rose 45-46 참고.

즈를 포함한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 작가들은 일방적으로 완전무결한 세상을 창조하고 의도된 주제를 전달했던 사실주의 작품의 형식과 소재, 역사 기록의 형식과 내용 등을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 양식과 조합하여 영국성은 단순히 제국주의에서 비롯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국인들의 인식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드러낸다. 본장에서는 역사와 역사에 기반을 둔 영국성의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반즈가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활용한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의 소재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패러디 대상 중 하나는 영국성 강화를 목적으로 삼아 1980년대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 교육" 관련 정책이다. 반즈는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등장인물들의 역사관 또는 역사 인식 과정에 미치는 위협과 그 영향력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오늘날에도 영국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는 영국성은 19세기 영국 정부의 산물이다. 제국주의가 성행하던 19세기 후반 이후로 영국 정부는 국가 이념과 국민 결속을 강화하는 유대의식을 이어간다는 명분 아래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활용하여 그 어떤 때보다 강한 영국성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영국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의식 강조는 당시 영국성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트림(Ryan Trimm)은 19세기 이후 영국의 지배계층은 의상, 인물, 사건, 특정 시기 등의 문화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적 상호 작용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현실을 갈등 없이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 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선별된 대영제국의 역사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한다.[9] 그리고 이 영국성은

9) 해당 내용 상세는 Trimm 53-60 참고.

양차 대전을 거치며 통합 국가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반면에 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영국 사회에서 기존의 영국성, 특히 역사를 기반으로 삼은 영국성은 사회 통합과 국민 의식 형성에 예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당시 영국 정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이유로 분열 위기에 처한 사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급격히 달라지는 사회에서 기존 영국성은 정부가 기대하는 사회 통합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민자 수의 증가였다. 1971년 이민법(Immigration Act)의 제정 이후 영국 본토 내에서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1980년대 이후 영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현대 영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사회·문화·민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백인 중산계층 영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국수주의적 설계에 따라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의 단합과 유지라는 임무를 수행했던 전통적인 영국성은 현대 영국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해결책이 아닌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와 같은 전통적 믿음에 근거한 영국성은 쉽게 제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1980년대 이후 정부 주도하에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재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의 영국성 강화 정책은 전에 비해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중심에는 보수당과 대처 총리가 있었다. 대처는 재임 당시 인종차별과 이민자 문제,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 제국주의의 소멸, 세계 경제 시장에서의 영국의 위상 하락 등의 국내외적 상황들을 영국인이라는 개인의 관점에서도,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의 관점에서도 큰 위협이자 반드시 해결할 문제로 간주했다. 이를 위해 대처는 국내외적으로 영국의 지위 회복을 꾀하고, 그 과정에서 대영제국을 상기

시키는 영국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 홀(Stuart Hall)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논고 「지역과 세계」("The Local and the Global")에서 "서양과 동양의 수평선 너머로 예전 영국의 정체성의 물질적 근간이라 불리던 것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대처주의는 더 확고한 정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협소하고 더 확고한 정의를 영국성에 부여했다."(Hall 25)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영국성 강화와 관련한 대처의 정책 중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이후 영국 공교육기관을 통해 전통적인 역사 교육을 제공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지적한다.[10] 대처 정부는 "역사적 지식"을 영국 공교육 역사 수업의 핵심요소로 결정하고, 학생들이 역사 탐구 및 비판 능력을 기르기 보다는 영국사로 지정된 지식을 반복적으로 암기하도록 지도하는 공교육 정책을 추구했다. 이 현상을 김중락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보수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역사였다. 이미 1984년 교육부장관이었던 키이스 조셉(Keith Joseph)은 "우리를 하나의 사회로 정의해주는 것은 동질성"이며, 역사교육은 "영국 사회의 독특하고 공유된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 1989년 7월 새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존 맥그레그(John Macgregor)는 역사초안그룹(History Working Group)에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첫째는 연대기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등단계(KS3와 KS4)에서 영국사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증가시켜 달라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은 역사적 지식에 대한 강조와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사실과 연대기 그리고 영국사 위주의 역사교육을 요구한 것이다.(김중락 215)

---

10) 대처주의가 보여주는 역사 재형성에 대한 잘 알려진 연구는 다음 저서들 참고. David Childs. *Britain since 1939: Progress and Decline.* (London: Macmillan, 1995). Eric J Evans. *Thatcher and Thatcherism.* (London: Routledge, 1997). Kenneth O. Morgan. *The People's Peace: British History Since 1945.* (Oxford: Oxford UP, 1999).

홀 역시 대처의 개혁을 유사하게 분석하고 대처 정부의 이런 역사 의식이 반영된 영국성이 야기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이 영국성은 영국인들이 그들의 사고체계에서 영국적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제하는 의식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이 영국성은 영국인들이 현대 영국을 구성하는 소수민족과 유색인종들 역시 영국의 중요 요소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이 영국성은 이들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의식이 그들의 사고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홀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처 정부의 역사의식이 반영된 영국성을 강하게 비판한다.[11] 그리고 쿠마르는 대처와 1990년대에 총리로 선출된 메이어(John Mayer), 블레어(Tony Blair)의 역사, 문화유산, 영국성을 인식하는 관점이 유사함을 지적하며, 이는 대처 정부가 고안한 역사와 이에 기인한 영국성 강화 정책이 사실상 현재까지 영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에 영국 정부가 영국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주도한 역사 관련 정책들과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당시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반즈와 같은 현대 영국 작가들이 정부가 유지하려는 역사 교육과 이에 기반한 영국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패러디를 활용한 작품을 집필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989년 전까지,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자율적인 공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대부분 지역의 경우 지방 교육청(Local Education)의 관리·감독 하에 교과목과 교과 교육 방법이 정해지고 시행되었으며, 담당 교사는 비교적 큰 자율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역사 수업은 탈문화성, 탈

11) 상세는 Hall 223 참고.

영국성, 학생 주도성을 지향하는 '신역사'(New History)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의 초·중등 역사 교육 시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학교 자문위원회 역사 프로젝트"(The School Council History Project)는 학생들이 역사적 증거를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역사도 당연히 불완전하다는 점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역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역사 지식을 주입식으로 강의하고 그 지식의 암기를 중시하는 교육에 반대하며, 역사 수업의 목표를 역사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인식하는 능력 함양으로 삼았다. 하지만 대처 정부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꾸려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였다. 대처 정부가 생각하는 기존 역사 교육의 첫 번째 문제는 역사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에 영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유산과 역사적 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기존 교육의 지도 목표와 방식은 19세기 이후 이어온 영국인의 정체성과 그 구심점인 영국성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학계, 언론,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역사 교육은 영국의 성취와 문화적 유산을 다루는 확고한 역사 지식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처 정부는 공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역사 교육 내용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역사 중심의 영국성 확보를 시도한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비록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교육보다 선별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강조된 역사 교육 보급에 성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영국성을 주입하려는 목표에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대처 정부 이후 영국의 역사 교육의 정책의 틀과 선별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는 역사 교육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현재의

영국 정부 역시 암기식 역사 교육의 결과인 영국성 강화와 사회 통합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잉글랜드, 잉글랜드』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는 영국 정부의 역사 교육 개정과 이를 통한 영국성의 재확립 시도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즈는『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여러 인물의 이야기와 패러디의 전복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초·중등 교육을 통해 습득했던 역사 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역사 기록의 불완전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기회를 빼앗고 의도적으로 "영광스러운 과거 영국"의 사건과 인물 중심의 역사를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구시대적 역사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강화를 꾀한 역사를 기반으로 삼은 영국성의 본질을 폭로한다.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첫 번째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는 마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역사를 배우던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1980년대 이후 영국 정부가 국공립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마사로 대표되는 일반 영국 미성년자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했던 현대 영국 역사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이 드러난다.

> 기원전 55 (짝짝) 로마가 침공했네
> 1066년에는(짝짝) 헤이스팅스 전투
> 1025년에는(짝짝) 마그나 카르타
> 1512년에는(짝짝) 헨리8세 폐하가 (짝짝)
> 신앙의 수호자
>
> 1940년에는(짝짝) 브리튼 전투
> 1973년에는(짝짝) 로마 협약
> 55BC (clap clap) Roman Invasion,
> 1066 (clap clap) Battle of Hastings,

1215 (clap clap) Magna Carta,
1512 (clap clap) Henry the Eighth (clap clap)
Defender of Faith

1940 (clap clap) Battle of Britain,
1973 (clap clap) Treaty of Rome" (11-12)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마사는 1장 「잉글랜드」("England")에서 유년 시절 학교 역사 시간을 떠올린다. 그녀의 회상을 통해 독자들은 마사가 참석한 역사 수업 과정에 영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과 사건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고안된 노래 부르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마사는 이 역사 수업이 "역사를 … 일련의 생생하고 경쟁적인 순간들로 만든다."(20)라고 평가한다.

그녀의 회상 내용은 어린 학생들이 즐겁고 쉽게 영국 역사상의 위인들과 주요 사건들이 발생한 연도를 암기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자국사를 학습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독자들은 여기서 반즈가 단순하게 당시의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이 노래를 인용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노래 가사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노래 구절 중 헨리 8세와 관련된 1512년, 두 번째 구절 중에 로마 조약과 관련된 1973년은 틀린 내용이다. 1491년에 출생한 헨리 8세는 1509년에 왕위를 넘겨받았으며, 1521년에 개신교의 대표적 학자인 마틴 루터의 논문을 반박했다는 이유로 당시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신앙의 수호자"(Fidei Defensor)라는 칭호를 얻는다. 그리고 인용된 노래 구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로마 협약은 1957년에 체결되었다. 즉, 반즈는 마사의 회상을 통해 어린이들의 역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실제 역사와 다르지만, 아이들은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의문 없이 노래를 암기하고 부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뉜닝(Vera Nünning)은 여기서 반즈가 마사의 목소리를 빌어

역사 선생인 메이슨의 수업을 "풍자된 애국적 역사관"이 "마사의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특정 방식으로 전형화된"(Nünning 61) 모습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수업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Any attempt at forging a national identity, 66)이며 "흐릿한 기억, 지식의 부족, 심하게 왜곡된 역사의 애국적인 관점을 반드시 감안해야"(has to reckon with elusive memories, lack of knowledge, and highly distorted patriotic views of history, 66)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분석한다. 반즈 본인도 귀너리와의 인터뷰 중에 베라의 분석과 유사한 맥락으로 국가와 역사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그리고『잉글랜드, 잉글랜드』는 국가에 대한 거짓된 진실을 실제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악한 아이콘 창조 이상으로 다룹니다. 집필을 마친 후에, 저는 "자국의 역사를 틀리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르낭이 쓴 멋진 인용문을 우연히 접했습니다. 이 말은 이 작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제문이 될 수 있어요. 역사를 틀리게 하는 작업은 또한 국가 창조의 부분이지요. 여러분은 해방의 신화, 압재자와 맞서는 신화, 용자의 신화를 만들어내야만 하니까요.

> And *England, England* is more about the creation of false truths about a country, and these coarse icons that are made to stand in for real things. After I had written it, I came across a wonderful quotation from Renan: "Getting its history wrong is part of being a nation."It would have made a perfect epigraph for the book. Getting its history wrong is also part of creating a nation. You have to build up those myths of liberation, myths of fighting the oppressor, myths of braver. (Guignery 59)

반즈는 마사의 회상 장면을 통해 역사가 국가와 국가 정체성을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 및 왜곡되는 상황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잉글랜드, 잉글랜드』이 출간된 1990년대 후반까지 유지된 정부의 역사 교육 정책에 대한 반즈의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를 접한 독자들은 역사의 단순화와 왜곡은 허구적 서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 세상에서 먼저, 그리고 여전히 발생하는 중이며, 그 이면에는 역사의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역사 수업으로 현대 영국 사회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반즈가 드러내는 80년대 영국 교육 정책과 관련된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의 두 번째 예는 "프란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와 관련된 마사의 회상 장면들이다. 어린 시절 마사의 친구였던 크리스티나(Christina)는 어느 날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해적이었대."(7)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의 역사 수업을 충실히 받아들인 마사는 드레이크를 "영국의 영웅이자, 귀족이고, 제독이며, 따라서 신사"(7)라고 굳게 믿고 친구의 생각에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한 백과사전에서 드레이크를 "해적이자 약탈자"(privateer and plunder 7)로 평가한 내용을 읽고 예전 친구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즉, 마사는 해석 주체의 기준과 입장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라도 영웅과 약탈자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평가 모두 동시에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역사상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의 내용이 유일한 절대적 진실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반즈는 당시 영국 정부가 지향하는 무비판적 역사 수용을 목적으로 삼은 역사 교육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국인들의 문제점과 영국성의 본질을 마사의 두 회상 장면을 통해 보여준다. 물론 이 장면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민족의식 함양에 적합하도록 공교육기관 역사 교육 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수십 년간 영

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은 정책만의 결과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발라섹(Júlia-Réka Vallasek)의 "반즈는 국가성이 지닌 인위적 특성, 그것의 종종 힘들게 습득되는 특성, 아직 어려서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한다."(Vallasek 124)라는 분석은 반즈가 의도적으로 영국 역사 교육 정책을 패러디했다는 이해에 힘을 싣는다. 다시 말해, 반즈는『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개별 인물 또는 사건의 나열을 중시한 주입식 역사교육과 국가 정체성 강화 정책이 해당 개념과 정책을 인위적 산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기회를 어린 시절부터 차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공유된 과거와 그 공유된 과거로 이루어진 상상적 서사"(Anderson 20)가 영국 사회에서 자리잡히도록 고안된 정부의 교육 정책 패러디는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역사와 영국성의 본질을 직시하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반즈의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를 이해한 독자들은 역사와 국가 정체성을 포함한 기존의 절대적 가치나 개념을 같은 국가나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완전한 개념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에 의해 조작 및 변경 가능한 불완전하고 실체 없는 허구적 개념이자 또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4. 나가는 말

블레어 정부는 2005년에 "상징물들: 영국의 명물"(Icons: A Portrait of England)라고 명명한 정부 공인 웹사이트를 개설했다.[12] 흥미롭게도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영국의 상징물 안내

12) 해당 사이트는 현재 폐쇄되었지만, 다음 주소에서 사이트 개설 당시 화

리스트는 정부 기관이 개설 및 유지하는 일반적인 문화/역사 사이트와 달리 고정된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에 사이트 관리자는 방문객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는 영국의 "상징물"들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권장하고, 그 의견 중 일부를 기존 목록에 실제로 포함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는 사기업이 아닌 정부주관의 사업이며, 그 시행 과정에 첨단 통신 기술을 더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반즈가 1998년에 발표한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보여준 핏트만과 그의 위원회가 정통 영국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및 목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반즈는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역사와 관련된 이미지, 인물,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영국성이 핏트만과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히스토리오그래픽 메타픽션과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를 통해 보여주고 영국성이 "고안된 전통"임을 밝힌다. 이는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의 "그것[고안된 전통]들은 관련 현상인 국수주의, 국민국가, 국가의 상징, 역사들, 그 나머지들과 함께 비교적 최근의 역사적 고안물인 '국가'와 매우 관련이 높다."(Hobsbawm 12)라는 주장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즉, 반즈는 독자들이 역사와 역사를 자양분 삼은 영국성 모두 자연스럽게 발생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대중정치의 출현 이후 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복종과 충성심을 수급하고자 인위적으로 설계된 개념, 허상 또는 신화임을 알아차리도록 실제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전통의 고안 장면을 다양한 사건과 인물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사 기법과 형식을 통해 제시한다.[13]

요약하자면, 반즈는 "멋진 브리테니아"라는 표어 아래 영국의 역사, 전통 문화를 전세계에 소개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면의 구성과 내용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eb.archive.org/web/20190512161605/http://www.icons.org.uk/#

13) 상세는 Hobsbawm 1-13과 70 참고.

외부에 비치는 영국의 분열된 이미지를 보정하려 노력하는 블레어 정부의 움직임과 대처 정부의 교육 정책을 패러디하며 역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성이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인위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그리고『잉글랜드, 잉글랜드』를 읽으며 내용과 형식을 통해 이중으로 강조된 영국성의 본질을 인식한 당시의 독자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래어 정권의 표어인 "멋진 브리테니아"(Cool Britannia)라는 문구가 어떻게 암암리에 그들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역사와 관련된 소재를 포스트모더니즘 소설 양식에 담은『잉글랜드, 잉글랜드』를 읽은 독자들은 영국인에게 일종의 유대감과 연합 의식을 제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의 근간으로 믿었던 영국성의 허구성과 이를 비판없이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잉글랜드, 잉글랜드』는 영국성의 본질을 영국의 제국주의와 관련짓는 기존의 이해에서 벗어나, 특정 집단의 이익 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현대 영국인의 의식 체계를 형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허구적 개념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오늘날 영국성이 지닌 의미와 영향력을 확장한 작품으로 분석될 수 있다.

Work Cited

김중락,「20세기 말, 21세기 초 영국 보수당의 역사교육정책과 역사전쟁」『영국연구』34.0 (2015): 207-240.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Barnes, Julian. *England, England*.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98.

Bedggood, Daniel. "(Re)Constituted Pasts: Postmodern Historicism in the Novels of Graham Swift and Julian Barnes" *The Contemporary*

British Novel. Eds. James Acheson and Sarah C. E. Ross. Edinburgh: Edinburgh UP., 2005. 203–216.

Bradford, Richard. "Julian Barnes's *England, England* and Englishness." *Julian Barnes*. Eds. S. Groes and P. Childs,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11. 92–102.

Denning, Penelope. "Inventing England" *The Irish Time*, 8 Sep. 1998. http://www.irishtimes.com/culture/inventing –england–1.190953/

Dolan, Josephine. "Post–war Englishness: Maytime in Mayfair, Utopian Visions and Consumer culture." *Englishness: Diversity, Differences & Identity.* Ed. Christopher Hart. Kingswinford: Midrash Publications, 2007.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London: Hamish Hamilton, 1992.

Guignery, Vanessa. ""History in Question(s)": An Interview with Julian Barnes." *Conversations with Julian Barnes*.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9. 53–63.

Hall, Stuart. "The Local and the Global"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 System*. Ed. A. King. Binghamton : Dept. of Art and Art History, State Univ.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1. 19–40.

Hobsbawm, Eric. "Introduction: The Invention of Tradition."*The Invention of Tradition*. Ed. Eric Hobsbawm, Terence Ranger. London: Cambridge UP, 1992. 1–14.

Hutcheon, Linda. *A Poetics of 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 1988.

_____. *A Theory of Parod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1.

Kumar, Krishan. "English or British? The Question of English National Identity." *The Making of English National Identity.*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17.

_____. "The Moment of Englishness" The Question of English National Identity." *The Making of English National Identity.*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75–224.

Nünning, Vera. "The Invention of Cultural Traditions: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Englishness and Authenticity in Julian Barnes' *England, England*," *Anglia* 119. 1 (2001): 58–76.

Margaret A. Rose. *A Parody: Ancient, Modern, and Post–moder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3.
Rostek, Joanna. *Seeing through the Past Postmodern Histories and the Maritime Metaphor in Contemporary Anglophone Fiction*.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2010.
Stapleton, Julia. "Political Thought and National Identity in Britain, 1850-1950" *History, Religion, and Culture: British Intellectual History 1750-1950*. Eds. Stefan Collini, Richard Whatmore, Brian Young.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45-269.
Roşcan, Alina. *Rewriting History in the Novels of Julian Barnes*. Bucureşti: Editura Centrul Tehnic-Editorial al Armatei, 2016.
Ryan Trimm. "Nation, Heritage and Hospitality in Britain after Thatcher,"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A wwweb Journal* 7. 2 (2005): 53-60.
Vallasek, Júlia-Réka. "Spaces of Alterity in the Works of Julian Barnes," Discourses of Space, Ed. Judit Pieldner.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3. 121-130.
Waugh, Patricia. *Metafic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 London; NY: Taylor & Francis Group, 1984.
Wellings, Ben. "Rump Britain: Englishness and Britishness, 1992-2001," *National Identities* 9. 4 (2007): 395-412.

(투고일: 2021. 2. 12 심사완료일: 2021. 3. 19 게재확정일: 2021. 3. 23)

엄지은
소 속: 성균관대학교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전자우편: reine97@skku.edu

[Abstract]

Julian Banes' *England, England*
A Myth of "Cool Britannia"

Eom, Ji-Eu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nature of Englishness based on historical factors or authorized history in British postmodernism fictions published after the 1980s. For this, as selecting Julian Barnes' *England, England*, which was published in 1998 and dealt with the issue of Englishness, I analyze how Barnes reveals the nature of Englishness with postmodernism narrative strategies in the first and the second chapter in *England, England,*

To illustrate the fictitious and artificial nature of Englishness, in the second chapter, I focus on the function of historiographic metafiction, one of postmodernism literary forms, while examining how Pittman and his committee designs the authentic "England, England." In the third chapter, I stress postmodernism parody as the key role in identifying not only imperfect but artificial characteristics of Englishness, and find out how parodies of political policies related to history classes, which have been controlled by the UK government since the 1980s, expose what Englishness is. In short, I will prove how Barnes defines Englishness supported by history features as a myth in *England, England* with the postmodern literary form and style as well as the content, and shows the possibility to expand the meaning and significant of Englishness.

Key words : Julian Barnes, *England, England*, History, Englishness
Historiographic metafiction, Postmodernism parody